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NOVEMBER / DECEMBER 2022
통합의료원보 VOL. 74 11/12

“환자와 가슴으로 소통하며 행복을 나눕니다”

김현건 교수와 최시자 환자의 ‘믿음’

SCH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12월의 선물

-윤보영

나를 위해 애쓴 11월을 보내니
12월이 웃고 다가섭니다.

이제 이 한 달은
새해 맞을 준비에 바쁠 테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많을 테지요.

그럴수록 여유를 갖고
잊고 지낸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야겠어요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부지런히 달려온 내 일 년이
일생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수 있게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12월이 나처럼 행복하게
내가 12월처럼 행복해지게.

순천향

2022. 11+12 VOL. 74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표지설명
70세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은 최시자 환자가 순천향대 서울병원 김현건 교수를 만나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반갑게 재회하는 모습을 담았다. 최시자 환자는 김 교수와 믿음 하나로 두려움 없이 치료 해준 것에 감사할 뿐이다.

LOVE 04
"교수님을 뵙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 최시자 환자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현건 교수

FOCUS 1 06
순천향대학교, '2023 THE 세계대학순위'에서 두각

FOCUS 2 08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DOCTER 10
진료 외 시간, 오직 '연구'에만 '몰두'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박태관 안과 교수

HISTORY 14
향설 박사, 손수 심은 벚꽃 길 걸으며 사색

VISIT 16
중부권 감염병 예방, "우리가 책임진다"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WITH 20
어려운 주민 찾아 봉사하는 '키다리아저씨'
- 이홍규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 회장

ISSUE
순천향대서울병원 'AVIEW' 솔루션 도입 22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22' 성료 24
'래디젝트 X9' 치료 2만 건 달성 25
구강작열감증후군 새 진단법 제시 26
정부 지원 '생애 첫 연구사업' 선정 28
순천향대 구미병원 공식 블로그개설 29

KNOWLEDGE
부작용 적고, 혈액형 달라도 이식 가능한 각막 30
세계 최초 입증진단 어려웠던 담도암 조기 감별 32
'담낭용종'이 있다는데 수술해야 하나? 34
우리 아이, 성장 검사 필요한가요? 36

EQUIPMENT 38

Life 40
철을 가려 마시는 제철커피의 가치

NEWS 42

통권 74호
발행일 2022년 11월 14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종,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연락처** 02-709-9592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교수님을 뵙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대장암 종양 3개 수술하고 5년 만에 완치 판정

건강관리의 첫걸음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암 발병률 1, 2위를 다투는 대장암과 같은 암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더욱 진행되기 전 대장내시경 등을 통한 정기검진을 진행하여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검진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귀찮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최시자 환자도 70 이전에는 정기검진을 가끔 걸러뛰었다. 이후 70세를 맞아 받게 된 정기검진에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생각지도 못한 대장암 소견이 나온 것이다.

글_ **전진용** 사진_ 권남기

2015년 당시 70세였던 최시자 환자는 정기검진 후 의사에게 대장암 소견을 받았다. 증세도 없었고 그동안 건강했던 터라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경기도 분당에 거주했기에 분당 서울대병원을 추천 받았다. 그런데 환자 친척 쪽에는 순천향대학 의대 출신 의사가 둘이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담당의는 “아! 지금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 아주 잘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을 한번 가보시죠”라고 했다.

최 씨는 친척 의사들의 소개로 근처의 서울대병원을 마다하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찾았다. 수속과 검진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리고 처음 만난 김현건 소화기내과 교수는 최 씨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교수님을 처음 뵙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믿음이 가더라구요. ‘아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교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담당의였던 김현건 교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다행히도 1기암이었습니다. 다만 3개나 되는 큰 종양이 있었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결국 대장암이더군요. 두 개는 내시경 수술이 가능했지만 하나는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입원 당시 너무 편해서 대장암이었던 사실조차 잊은 것 같다”

수속과 진단, 수술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 역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나이를 감안하면 조금 힘든 수술일 수 있었지만 환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니 힘든 줄도 몰랐다고 회상했다.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해주는 대로 따라간 게 전부입니다. 마치 내가 대장암이었던 것조차 잊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척 의사들의 추천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더 유명한 집주변의 서울대학병원을 포기하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선택한 것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본인을 어떻게 알고 찾아 왔는지 교수님도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절 믿으실 수 있으셨어요?’라며 웃더라구요.”

성의껏 모든 부분을 설명해주고 항상 친절하게 모든 것을 안내해 준 김 교수에게 최 씨는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었다. “솔직히 처음 교수님을 보고 무조건 잘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를 교수님께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도 진정으로 대해준 교수님에게 어떤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2~3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수술 후 5년간도 솔직히 아무 걱정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운동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지낸 거 같아요. 대장암을 판정받았던 그 시절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완치 판정 후 2년 만에 다시 찾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최 씨와 김 교수는 다시 재회했다.

김 교수는 “어머니는 7년이 지났어도 얼굴이 하나도 변화지 않고 똑같다”며 “2년간 못 봤으니 혹시 아프신데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며 반겼다. 이에 최 씨는 “교수님은 정말로 가족처럼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덕분에 걱정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최 씨는 7년 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직접 찾을 당시 병원에 대해 전혀 인지조차 못하는 상태였다.

“주변에서 ‘왜 바로 옆의 더 큰 병원을 두고 거기까지 가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순천향대학병원과 김 교수님을 만난 것이 대단한 인연이고 행운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2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됐다. 돌아가는 최 씨에게 김 교수는 “어머니 대게 암 수술 후 7년까지 경과해서 문제가 없으면 재발 확률이 낮으니 크게 걱정 마세요. 다만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니 꼭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으세요. 검진이 장수의 비결입니다”라며 끝까지 환자를 챙겼다.

순천향대학교, '2023 THE 세계대학순위'에서 두각

대전 · 세종 · 충청지역 사립대학 중 유일…교육 · 연구 · 글로벌 역량 입증

순천향대학교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2023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대학 순위권(1201~1500), 국내 대학 24위에 올랐다. 이번 THE 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1799개 대학이 참여해 1500위 권까지의 순위가 매겨졌다. △교육여건(30%) △연구실적(30%) △논문 피인용도(30%) △산학협력수익(2.5%) △국제화(7.5%) 등 5개 부문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순천향대는 이번 평가에서 △교원당 연구물 발행실적 △교원당 연구수입 △연구자 평판 등을 평가하는 연구실적 부문에서 세계 768위에 올라 연구역량 우수대학의 면모를 보여줬다.

종합순위에서 작년에 이어 세계대학 순위권(1201~1500위)에 랭크됐다. 순위에 오른 국내 37개 대학 중 24위에 올랐다. 대전·세종·충청지역 사립대학 중에서는 유일한 성과로, 순천향대는 "대학의 교육·연구·글로벌 역량을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동안 순천향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육여건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 최초·최고의 메타버스 입학식 개최 △125개의 첨단 O2O 하이브리드 강의실 구축 △현실과 메타버스 세상에서 다양한 도전과 체험적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도전 학습 메타버스 플랫폼(CSMP) 구축 등의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연구자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연구시스템 구축 △연구성과 분석·활용 고도화, △연구자 포트폴리오 활용을 위한 RIMS 시스템 개발 등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했다.

순천향 메타버시티(SCH-Metaversity)… 메타버스 캠퍼스 라이프 환경 구축

순천향대학교는 2021년 세계 최초 메타버스 입학식을 개최한 이후로 자체 세계관 구축, 메타버스&게임학과 신설 등 한층 진화된 '순천향 메타버시티' 브랜드 가치를 선보이고 있다.

순천향대는 지난 2월 개최한 '메타 우주와 리얼 우주의 만남(The Next Level), 2022 메타버스 입학식'에서 메타 휴먼 '스칼라(SCHolar)'와 '순천향 메타버스 캠퍼스'를 통한 '순천향 메타버시티(SCH-Metaversity)'를 선보였다.

지난해보다 한층 진화된 기술과 자체 세계관 구축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교육 패러다임의 뉴노멀을 구축해나가고, 현실과 메타 우주의 경계를 허물고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지속가능성의 토대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순천향대는 이번 입학식을 시작으로 현실과 메타버스 세상에서 함께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 캠퍼스 라이프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대학은 메타버스 공간을 입학식, 입시설명회 등 대규모 행사에만 국한해 활용하지 않고 ▲학과별 랜드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 ▲학생 상담 및 멘토링 ▲메타버스 도서관 운영 등 학생들이 순천향 메타버시티 안에서 개개인의 정체성이 반영된 아바타로 현실 세계가 이어지는 가상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도전 학습 메타버스 플랫폼(CSMP)' 구축

'도전 학습 메타버스 플랫폼(CSMP)'을 통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도전과 체험적 실패를 경험하고, 능동적 주체자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교육 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향대는 ▲대표 아바타 스칼라와의 인터랙션을 활용한 각종 실습 교과목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교육에 관한 교수설계 연구 ▲수업 효과가 큰 교과목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교육과정 시범 운영 등 '순천향 메타버시티' 건학을 완성하고, 메타버스 기반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AI, AR, VR, MR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 서비스 ▲인공지능 활용 적응형 학습 ▲Hyflex 교수법 적용 확대 ▲O2O 3-Way 하이브리드 강의실 운영 등 기존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에듀테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확대·활용할 예정이다.

'메타버스&게임학과' 신설, 메타버스 산업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

메타버스&게임학과(40명 정원)는 '메타버스(Metaverse)'가 급부상하며 새로운 주류시장으로 형성해 감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의 사회적 요구로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신설된다. AI·SW 기술혁신의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AR·VR, 빅데이터, AI, 5G, 클라우드 등 메타버스와 게임 콘텐츠 생태계의 이해를 토대로 기획 및 제작, 프로그래밍, 그래픽 개발 등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무에 강한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예방관리센터’와 ‘심뇌혈관질환 연구센터’도 설치 운용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장혈관 및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전문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통합 운영하던 대전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분리해 충남권역 센터를 따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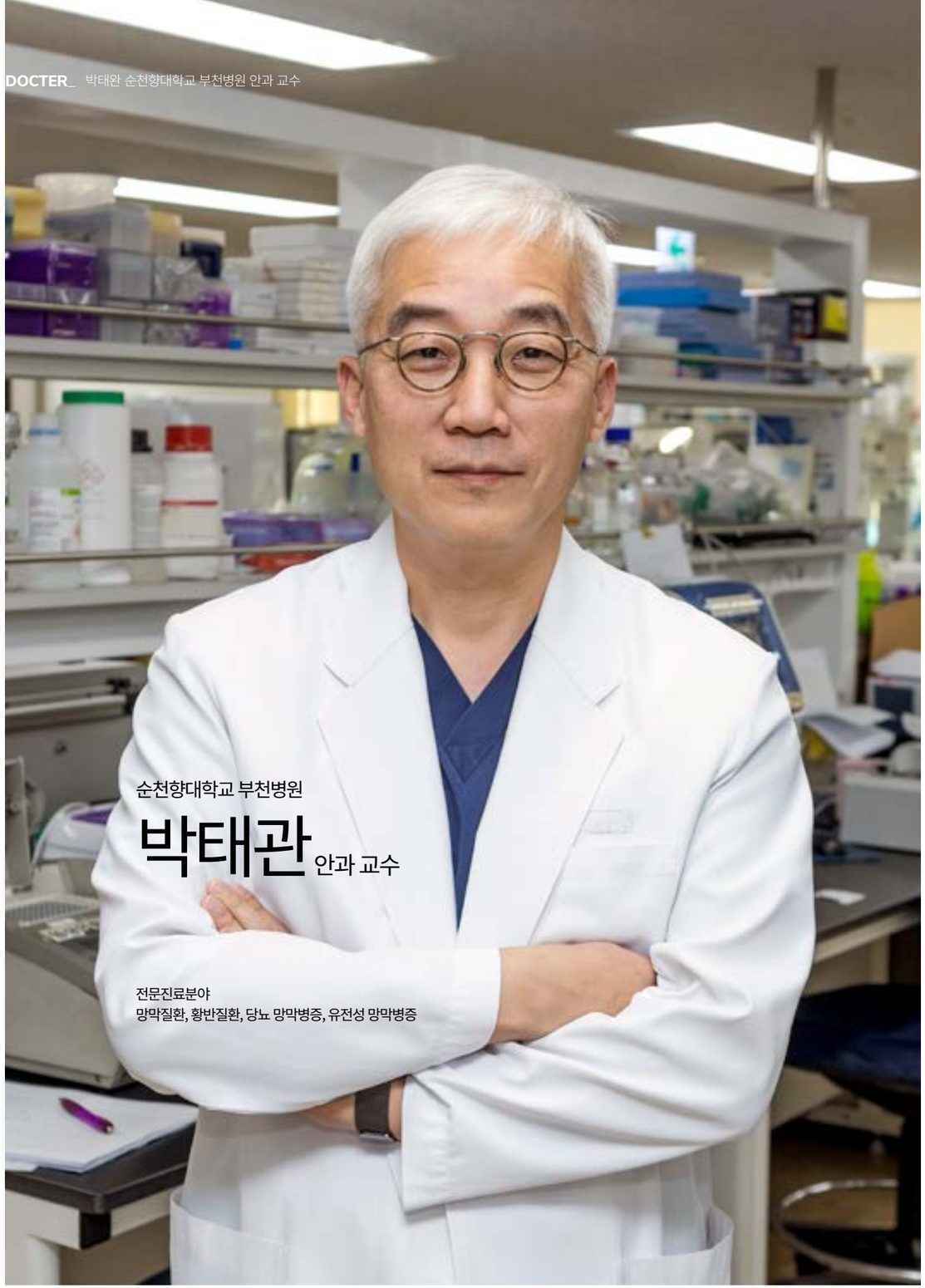
순천향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천안병원이 정부로부터 ‘충청남도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는 지정된 순천향대천안병원에 센터 설치를 돕기 위해 사업 1차 년도에 10억5천만원의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천안병원은 이에 더해 사업 2차 년도까지 총 242억원을 투입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형국 진료부원장은 “병원 내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등 3개의 임상센터를 설치해 급성기환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전문치료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병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연구 분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병원 내에 ‘예방관리센터’과 ‘심뇌혈관질환 연구센터’도 설치된다. 순천향대의대 예방의학과와 함께 운영할 예방관리센터는 퇴원환자들의 추후관리(follow-up 서비스)를 비롯하여, 환자 교육, 필수 전문 인력 교육,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센터는 순천향대천안병원, 순천향대의대,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등 3개 기관이 모여 ‘바이오메디컬캠퍼스’를 형성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치료법, 치료제, 치료기구 개발에 나선다. 백무준 연구부원장은 “순천향이 보유한 풍부한 진료, 교육,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극복과 의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병원은 현재 새병원(1000병상, 2024년 개원)과 감염병 전문병원(142병상, 2025년 개원)을 신축 중이다. 박상흠 병원장은 “새로 짓는 두 병원은 최적의 검사시설과 첨단 장비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물론, 감염병 대 유행 시에도 심뇌혈관 진료 및 수술이 가능한 독보적 시스템과 역량을 갖출 것”이라면서 “40년 역사의 지역 대들보병원으로서 심장과 뇌가 건강한 충청남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새병원과 충청권 감염병 전문병원



진료 외 시간, 오직 '연구'에만 '몰두'

"착한 의사보단 고치는 의사 될 것"… 유전자 질환 연구에 '올인'

어린 시절 등 과거사를 묻는 첫 질문에 "난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나간 시절 얘기는 하지 맙시다"라며 웃는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박태관 안과 교수다. 이어진 질문에는 망설임도 없이 "군대 가기 싫어서 의대에 왔다"며 또 웃는다. 저명한 안과 전문의의 말치고는 조금 허탈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솔직하고 꾸밈없는 말투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게 된다. 가감 없는 성격의 박태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_ **전진용** 사진_ 한남기

박 교수의 말처럼 실제로 삼수를 하다가 영장이 나오니 군대를 안 가려고 의대를 선택한 것은 사실이었다. "원래는 기초과학을 하려고 했죠. 의대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삼수를 하고 몇 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학교를 사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대 시절 성적은 우수했다. 미리미리 공부해 놓고 시험 전 공부하는 친구를 "술 마시러 가자"며 꼬드기던 머리 좋고 장난기 많은 의대생이었다. "본과 2학년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 후 임상 과목부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공부만 했죠." 당시 의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바로 안과였다. 신경과 신경외과 등을 두고 고민도 했지만 결국 안과를 선택했다.

"의대 시절 본과 2학년 때부터 내 연구실에서 한 3년 정도 실험을 했습니다. 개업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나는 실험을 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험을 하겠다는 결심은 섰는데 막상 안과는 별로 실험할 게 없었다. "당시 안과는 연구, 실험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개업은 싫고 월급쟁이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박 교수는 항상 환자를 보는 의사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구 활동을 해 오면서 지금은 유전 질환 연구에 빠져있다. "항상 유전 질환 연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유전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할 여건이 안 되어 못할 때 다른 연구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유전 질환 연구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유전 질환 연구로 '불치병 치료제 개발'이 목표

줄곧 쉬지 않고 연구를 해온 박 교수의 궁극적 목표는 본인이 직접 만든 치료제로 불치병에 가까운 유전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임상 연구까지 가보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부천병원에 있는 동안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박 교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부임 후 연구를 위해 일본 '나고야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방문연구원(시각전기생리학)'과 미국 국립보건원(NIH) 부속 국립안연구소(NEI) 연수를

통해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다. 박 교수의 이런 연구 활동은 여러 성과로 되돌아왔다. 지난 2014년에는 레이저를 활용한 황반 치료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안과 저널 IOVS(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에 채택되어 망막 손상 없는 안전한 치료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15년에는 '레이저와 안구 조직세포의 상호작용'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 IOVS(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에 논문을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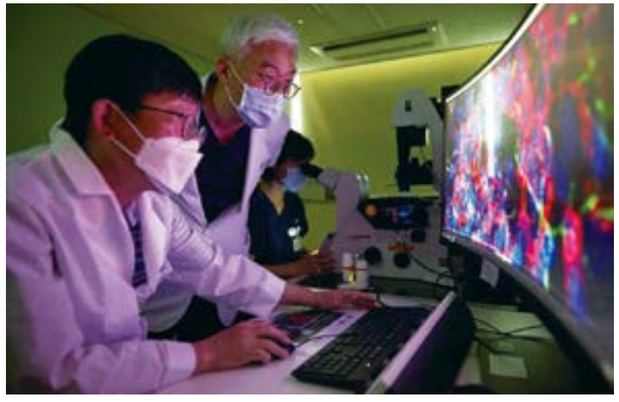
단 하나의 유전자 연구에 집중… "서두르지 말고 재차 검증하라"

"유전 질환이라는 것은 접근을 조금 달리해야 합니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실명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유전자만 250가지가 넘거든요. 그렇기에 이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의학자들은 보통 한 사람이 하나의 유전자에 대해서 평생 연구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 연수 당시 스승이었던 분 역시 평생을 하나의 유전자에 관해 연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 스승님 역시 지금까지 하나의 유전자를 여전히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성하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결과가 도출됐을 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을 통해 똑같은 결과인지 검증합니다." 박 교수는 아직 국내에는 외국에서 제대로 눈에 대해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드물다고 전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을 자신이 본 것만으로 무엇이라 바로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보고 검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논문을 쓰기 위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30~40대 일부 학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쉬워했다.

좋은 의사보다는 '고치는 의사' 되고 싶은 꿈

박 교수는 자신을 희생해서 환자를 돌보는 '좋은 의사'의 삶도 의미가 있지만, 본인은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연구하는 유전 질환은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에 가깝죠. 불과 10년 전 만 해도 그런 질환을 보면 의사들이 '5년 후에는 실명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질환을 고칠 수 있는 연구에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극소수지만 이런 불치병의 치료법을 개발한 몇몇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과 질환 중에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이 나왔지만, 가격이 무려 5억원 약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연구는 1990년대부터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약을 만드는 데 그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보다는 난치병을 고치는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어 인류에 뭔가 보탬이 되려고 생각할 때 거기서 고부가가치의 뭔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죽기 전까지 불치병의 단 한 명의 환자를 고치는 게 오히려 목표"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죽기 전까지 불치병의
단 한명의 환자를 고치는 게
오히려 목표"라고 전했다.
이 목표를 위해
박 교수는 환자를 보거나
수술을 하는 시간 외에는
오직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 박 교수는 환자를 보거나 수술하는 시간 외에는 오직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 우리 팀원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는거죠(웃음). 항상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좀 더 제대로 해봐라' 하니까요."

연구와 환자치료의 조화로 유기적인 병원으로 발전해야

박 교수는 인생에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세 명의 의사가 있다. 경희대 의대 시절 스승님, 내과 연구를 도와주던 선생님, 그리고 한 명이 미국 연수 시절의 스승님이다. 박 교수는 미국립보건원(NIH)에서 2년간 연수했다. 미국립보건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함께 미국 내 가장 큰 연구기관으로 연구비도 나사와 버금간다.

"미국립보건원 산하에는 28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작은 규모가 안과예요. 제 스승은 그곳의 회장입니다. 48년생이니까. 75세 정도 되셨네요. 항상 이분이 사는 길과 비슷한 길을 걸었으면 했습니다. 이 연세에도 여전히 하나의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박 교수 본인은 항상 연구에 진심이지만 모든 의료진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 병원에서 모든 의료진이 연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병원은 잘 안 돌아갈 겁니다. 각자의 소신껏 환자치료에 임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한 10%의 의료진만은 연구에 진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도 유기체와 같아서 연구와 환자를 보는 것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한 회사와 함께 임상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셈이다. "후배들에게는 목표를 크게 가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연구가 될지언정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안과의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저는 오직 하나의 목표인 유전자 질환 치료제 개발에만 몰두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20년간 몸담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줄곧 하고 싶었고 해 온 것이 바로 연구"라며 "이처럼 정이 넘치고 의료진 간의 팀워크가 좋은 병원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향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향설 박사, 손수 심은 벚꽃 길 걸으며 사색

가장 특징있는 의과대학

인자한 표정에 네모난 얼굴형에 두터운 안경 속으로 선한 눈빛 미소, 소곤소곤 진지하고 조용한 말투, 대화중에도 결재나 상의가 오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내리는 결정, 한마디로 부드러움과 강함을 함께 지닌 좀처럼 보기 힘든 사람이었다. 특히 의과대학을 한국에서 가장 특징 있는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그 단단한 표정에서 비쳐졌다.

서 박사는 그때 이미 먼 훗날을 내다보고 일류대학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종합대학을 만들려고 하니까 교수와 학생 요구율이 충족되어야 했고 건물도 기준에 따라서 2-3개 더 세워야 하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시 서 박사는 1만여 평의 부지를 어렵게 장만하고 직접 설계한 도면으로 우성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종합대학 신청 인가를 받았다. 토지매입 과정에서 학교 식당 뒤 연못이 하나 있었다. 그 뒷산을 다 매입하지 못했다가 후에 매입했다.

벚꽃 길이 아름다운 학교

서 박사는 일찍이 아름다운 자연공간을 만들고자 학교 정문에서 본관까지 벚꽃을 심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숙사를 먼저 지을 정도로 학생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남달랐다.

서 박사는 학교의 나무 한 그루에서 운동장까지 일일이 챙기며 돌보고 벚꽃 길도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섬세함도 갖고 있었다.

일본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의 추억, 아담한 건물.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 길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다.

순천향대학 역시 거창한 건물보다 기능성이 뛰어난 여러 동의 건물, 사이사이로 학생들이 쉬고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벚꽃 길을 만들고 싶어 했다. 특히 후문 입구에 서 박사가 직접 만들어 놓은 벚꽃단지가 있는데 삭막한 학교 장소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서 였다.

지금도 그 벚꽃 길은 지역 명물이 되어 해마다 봄이 되어 꽃이 만개하면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서 박사는 학교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조용히 벚꽃 길을 걷다가 돌아오곤 했다.

대학 설립 위한 준비 박차

종합병원이 서 박사의 꿈의 종착역은 아니었다. 1968년 고려병원으로 옮길 때에도 그랬듯 서 박사의 목표는 사회에 필요한 의료 인재를 배출해내는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이었다. 병원을 개원한지 이틀만인 1974년 7월 8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학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순천향병원은 개원한 해 10월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아 1975년 인턴 16명, 1976년 전공의 10명을 모집하여 전문의 수련교육을 하고는 있었지만 체계적인 의료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박사의 욕심은 그 정도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학부 과정부터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필요했다. 의사로서 종합병원 하나쯤은 해봐야겠다 싶어서 시작했지만 진료에 시달리기만 했지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더군요. 의과학이라는 것이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하는 것인데 병원만 가지고는 학문하는 풍토를 만들 수 없어요.(서석조 박사, 의학신보 1978년 3월 9일자) 병원을 만들 때부터 의과대학을 염두에 두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사가 선진국 대비 너무나 적다는 사견을 갖고 있었다. 순천향 의과대학 설립 당시 운 좋게 의견이 맞았다.

순천향 이전과 순천향 이후

순천향대학이 생기기 전과 생기고 난 후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 전국에 80개 정도의 대학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의과대학은 20여개 밖에 없었다. 하지만 순천향의대가 물꼬를 튼 이후 의과대학이 붐을 이루듯 생겨나 이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닫혀 있던 의대 증설의 문이 열리면서 매년 새로운 의대가 생겨났다. 인제대, 한림대 등이 바로 의과대학 등이 뒤를 이었다. 의사들은 손해를 많이 봤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무의촌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이끈 대표 주자가 바로 순천향의대였다.

순천향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한 학교 차원을 넘어서 교육 계에도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우리나라 정규 대학 신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전국 대학은 250개 정도인데 3분의 2 이상이 순천향대학 설립 이후 생겨난 학교들이다. 순천향대학은 의과대학 개설의 붐도 가져왔지만 전체 고등교육 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국 고등교육의 제1기의 선두주자를 서울대라고 한다면 2기의 선두주자는 당연히 순천향대학이다.

이와 같은 배경과 함께 개교한 순천향의과대학은 현재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여 전문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설립자 서석조 박사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 신경내과학자 한 사람의 의지가 만들어 놓은 변화를 확인하면서 후학들은 무엇이 세상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일인지, 사람들은 왜 꿈을 꾸고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게 된다. SCH

중부권 감염병 예방, “우리가 책임진다”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코로나19에도 최전선에서 활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과장 전민혁)는 지난 2007년 3월 1일 처음 신설됐다. 천안병원 감염내과는 그동안 충남지역, 중부권에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코로나19 발병 후에도 최전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왔다. 재난 앞에서도 특유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도전과 노력을 기울인 천안병원은 당당히 ‘충청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그 중심에 ‘감염내과’가 있다.

글_ 전진용 사진_ 김현아

감염내과는 우리 지역사회의 토착 감염병(풍토병), 결핵,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HIV감염/AIDS(후천면역결핍증), 희귀감염병 등 다양한 감염병의 외래 진료 및 입원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천안병원 감염내과는 장기이식이나 종양 및 만성질환으로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발생하는 감염질환(기회감염)에 대한 원내 협의진료(Consultation)도 맡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백신 또는 예방적 약물)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여행자들을 위해 각종 유입 전염병에 대한 상담, 지역 전염병 정보제공, 예방과 치료도 실시한다.

또한 긴급한 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관리의 문제점 발생 시 감염대책위원회를 열어 신속히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병원 감염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이밖에도 항균제의 오남용으로 생길 수 있는 항균제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항균제 내성균을 일으키는 항균제 처방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충남권역 최고의 감염병 전문병원 ‘우뚝’

천안병원은 지난 2020년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됐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천안병원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중부권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앞으로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검사, ▲공공·민간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 실시, ▲감염병 위기 시 중증환자 치료, ▲환자 중증도 분류지원 등을 전담한다. 천안병원이 신축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병원 암센터 바로 옆 대지 6,600㎡(2천 평)에 지하 6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다.

음압격리병상으로 채워질 감염병 전문병원의 병상 규모는 총 142병상이다. 음압격리병상 외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은 ▲음압중환자실 ▲음압수술실 ▲음압 감염외래구역(국제감염병센터, 감염병의뢰센터, 진찰실, 처치실, 가입원실 등), ▲일반감염 외래구역(감염내과 외래진료실 등) ▲공통구역(선별분류소, 영상검사실, 채혈실, 약제실 등), ▲교육훈련센터 등을 갖춘 최첨단 전문병원으로 지어진다.

코로나19 중부권 예방접종센터 역할 수행

천안병원이 운영한 ‘코로나19 중부권 예방접종센터’는 지난 2021년 3월 3일 첫 접종을 시작한 지 8개월, 234일 만인 2021년 10월 22일 업무를 종료했다. 천안병원 접종센터의 접종 인원은 총 61,096명이다. 코로나19 전담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계열 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고령자, 교육자, 일반인까지 확대 실시한 최종 결과다. 천안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도전과 노력을 기울인 천안병원은 당당히 ‘충청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고, 이어 ‘코로나19 중부권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중책도 맡았다.

3년 연속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천안병원은 올해 8월 18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1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결과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질병청은 사업 참여 43개 의료기관 중 감염병 예방과 감염률 저감에 큰 성과를 올린 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충남권역 중심병원으로 활동한 천안병원은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감염률 감소 ▲감염병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활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 예방 ▲자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교육 등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에 앞서 올해 8월 12일에는 감염관리실(실장 유시내, 팀장 박은경)이 2019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2019년 실시한 평가는 전국 33개의 권역 중심병원과 190개의 참여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민혁_ 감염내과 과장, 교수

모든 팀원 장점 끌어내 시너지를 창출해야

전민혁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는 팀의 수장으로 감염내과를 이끌고 있다.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당시 메르스 확산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천안시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메르스 발병 초기부터 병원 내 강력한 방호태세 구축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만큼 감염병 예방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는 항상 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감염병이라는 특성상 완치가 잘 될 수도 있지만,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줄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또한 감염병은 여러 과와 협의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협의 진료를 위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일정부분 갖추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일 공부를 하며 따라가는 것이 힘든 부분이지만 의사로서 기쁨이나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천안병원 감염내과는 중부권역에서 감염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최종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하고 있다.

"2025년부터 감염병 전문병원을 개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외형적으로도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공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또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원 모두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내_ 교수

어떤 감염병이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유시내 교수는 전공의 시절, 적절한 항균제 사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 감염내과를 선택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면역저하 환자분이었는데 감염병을 여러 차례 잘 치료했지만, 결국 치료 가능한 항균제가 없는 다제내성균 감염이 생겨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감염병도 잘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내성균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3년 연속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팀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판데믹 초기 야근이 일상이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성장의 원동력을 삼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HIV 감염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장기간 격리치료를 하면서 직장에서 해고되어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에는 다양한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에이즈상담사업을 통해 상담간호사와 함께 경제적 지원단체를 연결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치료가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현재는 외래진료실에서 만날 때마다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우리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세심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박정완_ 교수

난치감염병 연구에 전념, 연구시설 확대에 큰 기대

박정완 교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천안병원에 왔다. 처음 느낀 점은 4개 지역 모든 순천향 의료원이 다 한 가족 같다는 점이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감염내과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질환 중 hiv 환자가 있고 이 환자들은 심리적인 지지나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의료진의 안정감 역시 환자를 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박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중에 환자 치료에 보다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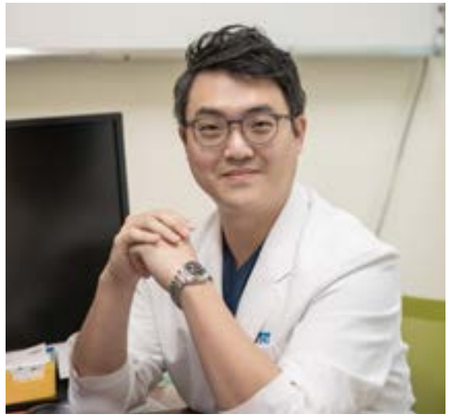
"사실 제가 중환자를 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델타 유행 당시에 굉장히 중환자가 많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환자들이 좋아져서 나가는 걸 보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난치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 전념할 계획이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경험하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졌던 게 항생제 내성균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보면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의 최우선 목표 역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제 저희 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이 되다 보니까 신종 감염병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먼저 유입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병원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은경_ 팀장

지역 내 중소병원 ·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및 교육 지원

박은경 감염관리팀장은 감염관리와 예방, 교육 등에 특화된 전문 간호사다.

병원 내 감염관리 활동과 지역 내 여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자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가 3년 가까이 돼 가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도 능숙해지고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도 가능해져 초기에 대응하던 때처럼 큰 어려움은 없는 거 같습니다.

초기에는 다른 감염병 관리 업무는 아예 못할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대응 업무는 지침화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여 기존의 감염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염관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실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규정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1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정해져 있고 매년 빠짐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타 병원에 비해 적극적으로 교육 지원이 가능한 편입니다. 학회에서 하는 연수 과정이나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감염 관련 최신 지견을 획득하고 원내 감염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팀장은 지난 2019년도에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인근에 있는 중소병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감염관리 관련 지식이나 인적 교류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 성과가 인정을 받은 것 같네요."

어려운 주민 찾아 봉사하는 '키다리아저씨'

2011년부터 구미병원에 기부…고아주민 위한 다양한 기부·봉사활동

구미에는 라이온스클럽이 여러 개 있다. 그 중 구미의 고아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은 지난 97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고아지역 주민 뿐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구미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올해는 기업인 이홍규 대표가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의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글_ **전진용** 사진_ 김현아

이홍규 회장은 수출 포장 전문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다. 회사는 왜관에 있지만 고향은 이곳 고아 출신이다. "저희 클럽은 사업가, 농업, 자영업 등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모인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011년부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 인연을 맺고 있다. 어려운 환자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면 구미병원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환자들에게 사용한다. "정식으로 기부협약을 한 것은 2013년도입니다. 이제 10년이 됐네요. 처음 순천향대 구미병원이 생길 때 이 지역 모든 주민들은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미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에 클럽에 가입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봉사와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하천 청소부터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까지

임기 1년의 회장직이지만 이 회장은 임기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 강조한다. 침체된 지역사회를 살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더 보태는 것이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구미병원과 함께 하던 의료봉사는 할 수 없지만 기부금 전달로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입니다. 주변을 세밀히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이웃입니다." 대부분 라이온스클럽이라 하면 대기업 회장이나 럭셔리함을 떠올리지만 이 클럽은 달랐다. 거창한 후원이 아닌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고 소통하고 살을 부비며 직접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봉사의 내용만 봐도 서울의 대형 라이온스클럽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세심하다. "의료봉사, 학생장학금, 사랑의 연탄배달, 불우이웃 김장 나누기, 불우이웃 성금기탁, 독거노인 쌀 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후원금 전달,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 등 종류는 많습니다. 거창하지는 못하지만 가까운 곳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드리려 노력 중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이다. 이웃 주민들 중 살기가 힘들 정도로 낡은 집들을 직접 고치고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이다. 세심한 관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기부라 할 수 있다. 상하천 정비나 쓰레기 청소 등도 모든 회원이 자발적으로 몸소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은 이 지역의 키다리 아저씨로 통한다.

"구미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살리는데 힘 보탤 것"

"현재 구미공단을 비롯해 구미시 전체가 너무 침체되고 힘듭니다. 곡소리가 나올 정도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힘든 주민들도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미병원과 같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구미병원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구미병원과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지역의 의료봉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연말행사 같은 자리에 구미병원 직원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구미병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지나 규모를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이 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이자 지역 최고의 병원입니다. 1979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 40년 넘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곳입니다." 이 회장 개인에게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의 인연은 깊다. 슬픈 인연도 있고 행복한 인연도 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과 삶을 함께 해 온 자취라 할 수 있다. "저희 어머니가 1994년도 교통사고로 구미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행복한 추억이 더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 두 명이 이곳 구미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회장은 "지역주민에게는 구미병원이 가장 구미를 대표하는 가족 같은 병원"이라며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 역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SCHS

순천향대서울병원 ‘AVIEW’ 솔루션 도입

AI 기술 활용한 ‘간질성폐질환’ 진단 자동화 정량 분석

순천향대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최근 폐 질환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코어라인소프트의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료 솔루션을 도입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이 도입한 솔루션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에 필요한 폐 영상 분석을 AI 기술을 활용해 완전 자동화한 솔루션 'AVIEW COPD'와 간질성폐질환(ILD) 진단에 이용되는 자동화 정량 분석 솔루션 ‘AVIEW Lung Texture’ 이다.

사진출처: 코어라인소프트

전 세계 사망 3번째 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와 폐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꼽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에 이어 전 세계 사망의 3번째 원인이다. 국내 유병률도 높은 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0세 이상 유병률은 13.3%, 70세 이상은 48.5%에 이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간질성폐질환은 폐 간질에 만성 염증 및 섬유화가 진행해 폐의 탄성도가 감소하고 가스교환 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호흡곤란과 마른기침이 주요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점차 진행돼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특발폐섬유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40%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최근 항섬유화 약제 개발로 치료 반응의 대한 평가와 조기발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및 정량 분석

‘AVIEW COPD’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며 흉부 CT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중요 영상 소견들을 정량화하는 솔루션이다. 기관지와 폐엽의 자동 분할과 중요 영상 소견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행해 폐 실질 변화와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관지와 세기관지 등의 기도 변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AVIEW Lung Texture’는 간질성폐질환 진단과 평가를 위한 완전 자동화 및 정량 분석 솔루션이다. 딥러닝 알고리즘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간질성폐질환에서 보이는 6가지 패턴의 중요 폐 실질 영상 소견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분석하고 정량화 한다.

이에 따른 결과 값을 리포트 형태로 자동 생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간질성폐질환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단 보조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이번에 도입한 AI 솔루션으로 중요 폐 질환들을 초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식별해 진단과 치료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가겠다”고 밝혔다.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22’ 성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코로나로 3년 만에 개최 큰 호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22’ 기념 촬영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소화기병연구소가 주최한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22’가 9월 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국내 소화기 분야 의료 발전을 위해 소화기 의료진·관계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3년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속 대표 교수진들이 연자로 나섰다. ▲위용종성 병변의 내시경 진단 및 치료(홍수진 교수), ▲간섬유화검사(Fibroscan)의 정확한 측정법과 활용(김상균 교수), ▲새로운 담도내시경(SpyGlass DS)으로 담도를 위·대장처럼 관찰하기(문종호, 이윤나 교수), ▲간세포암종의 표적항암제 및 면역항암제(김영석 교수), ▲불완전 절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대장용종절제술(고봉민 교수) 등 실제 임상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내시경·초음파 시술 생중계와 강연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대장 모형을 이용한 대장내시경 삽입술과 저온 용종절제술, ▲위 모형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인공점막조직을 이용한 점막하 주입술, ▲훈련 모델을 이용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 기본 술기, ▲복부 초음파 검사, ▲간섬유화·횡파탄성초음파검사 등을 실습하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시장에는 인공지능(AI) 대장내시경 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문종호 교수가 ‘새로운 담도내시경(SpyGlass DS)으로 담도를 위·대장처럼 관찰하기’를 라이브로 선보이며 새로운 담도내시경을 소개하고 있다.

‘래디젝트 X9’ 치료 2만 건 달성

최첨단 방사선치료기로 도입 2년 6개월 만에 달성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최근 최첨단 방사선치료기 ‘래디젝트 X9(Radixact X9)’ 치료 횟수 2만 건을 달성해, ‘경인 지역 중증 환자 치료에 기여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2020년 3월 경인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최초로 ‘래디젝트 X9’을 도입한 지 2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부천병원 ‘래디젝트 X9’ 치료 횟수 2만 건 중, 대표적으로 폐암 환자가 30%, 직장암 환자가 17%, 뇌종양 환자가 11%, 두경부암 환자가 11%, 간암 환자가 9%를 차지했다. 2만 번째 치료 대상은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던 폐암 3기 환자였다.

‘래디젝트 X9’은 최신 방사선치료 기술인 영상유도 방사선치료기술(IGRT, image-guided radiation therapy)과 세기조절 방사선치료기술(IMRT,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을 탑재하고 있다. 내장된 컴퓨터 단층촬영(CT) 장비로 치료 전 종양 위치, 크기, 형태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부위에 따라 방사선 세기를 조절하여 정상조직 손상은 최소화하고 종양 부위만 형태대로 조준하므로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또, ‘래디젝트 X9’은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빠른 속도(1,180 MU/min)로 방사선을 조사하므로 종양의 크기, 모양, 수와 관계없이 동시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다 정밀해진 환자 테이블의 움직임을 통해 테이블 이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기계적 오차도 최소화했다.

부천병원 여승구 방사선종양학 과장은 “최근 방사선치료는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발전해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치료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병원은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통해 수술, 항암 약물치료, 방사선치료를 유기적으로 제공하며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유튜브 안내 영상을 제작해 방사선치료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 치료계획시스템(Precision RTP)을 이용한 치료 선량 설계와 첨단 치료기 정도관리(QA)를 담당하는 의학물리사가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돕고 있다.

SCHC

구강작열감증후군 새 진단법 제시

핵의학 검사인 침샘스캔을 이용한 진단법

천안병원 이상미(핵의학과), 박재홍(이비인후과), 서울병원 변형권(이비인후과) 교수팀이 연구논문을 통해 새로운 구강작열감증후군 진단법을 제시했다.

구강작열감증후군은 구강 내 뚜렷한 병변이 없는데도 입 안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이다.

대부분 갱년기 · 중년 여성에서 발생하며, 명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이 제시한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새 진단법은 핵의학 검사인 침샘스캔을 이용한 진단법이다.

박재홍 교수는 "구강 내 소견 및 혈액 · 세균배양 · 영상검사 등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구강작열감증후군 진단은 현재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침샘스캔의 결과치를 활용했으며, 객관적인 구강작열감증후군 진단법을 정립한 최초의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입마름증으로 내원한 환자 164명를 대상으로 침샘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들과 단순 입마름증 환자들은 턱밑샘의 섭취속도, 침의 배출농도 등 다양한 척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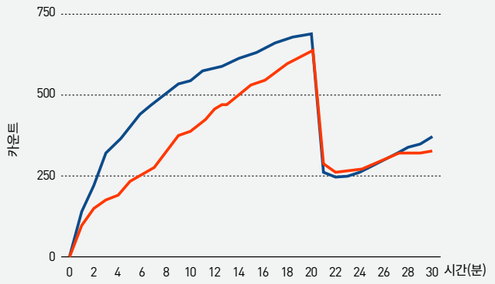
이상미 교수는 "침샘의 섭취속도, 배출속도, 섭취비율, 축적정도 등 22개의 척도를 분석해 유의한 척도를 점수화 시켰다"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현 진단법을 대체할 객관적 진단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 Diagnostics 2022년 9월호에 '구강작열감증후군에서 정량적 침샘스캔의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 of Quantitative Parameters of Salivary Gland Scintigraphy for Diagnosing Burning Mouth Syndrome)'을 제목으로 게재됐다. S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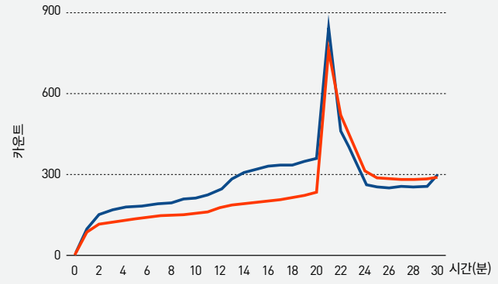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상미 교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박재홍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변형권 교수



구강작열감증후군(붉은색)이 단순입마름증(파란색)에 비해 턱밑샘의 섭취 속도가 느리다



구강 내 신경을 자극하기 전(20분) 구강작열감증후군(붉은색)이 단순입마름증(파란색)에 비해 침의 배출농도가 적다

정부 지원 '생애 첫 연구사업' 선정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김대근 교수 연구팀

김대근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정형외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도 하반기 생애 첫 연구사업'에 김대근 교수(정형외과) 연구팀이 선정됐다. 생애 첫 연구사업은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연구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최대 3년간 연간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김대근 교수 연구팀은 연구자의 우수성 및 역량과 의지를 인정받아 생애 첫 연구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연구과제는 '능동적 관절운동이 가능한 손가락 보조기 개발'로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년 6개월간 약 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다.

김대근 교수는 "손가락 외상환자들의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 손가락 보조기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며,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좋은 성과를 도출하여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공식 블로그개설

https://blog.naver.com/sch_gumi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은 10월 1일, SNS를 통한 소통, 정보 유통 및 접근성 편의 제공을 위해 공식 블로그 "순천향대 구미병원"(https://blog.naver.com/sch_gumi)을 오픈했다.

블로그는 ▲의료진 소개 ▲진료과 안내 ▲건강정보 ▲병원뉴스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병원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주차안내, 입퇴원절차, 진료예약 등 병원을 이용하는 내원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병원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일권 병원장은 "다양한 세대의 내원객과 적극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유튜브 활성화 및 블로그를 개설하게 됐다"며,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통해 내원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병원은 유튜브를 통해 브이로그, 콘텐츠 개발과 발굴 등 자체 제작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블로그, 옐로카카오톡 등 SNS 연동이 가능해 다양한 경로로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다.

정진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교수

안구의 가장 바깥쪽 표면으로 눈에서 제일 먼저 빛이 통과하는 부분이 각막이다. 각막 표면은 눈물에 의해 습윤 상태가 유지되는데 계속 적셔지는 눈물은 빛을 일정하게 통과시키고 굴절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해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염증 및 외상 등으로 각막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을 경우 치료 방법을 알아본다.

부작용 적고, 혈액형 달라도 이식 가능한 각막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각막이식클리닉

각막 부종이 지속 되면 각막이식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하지만, 우리 몸에서 외부로 노출된 가장 연약한 조직이기도 하다. 충격이나 오염 물질 등 외부환경과 직접 맞닿아 있어서 외상을 당할 수 있고 각종 질환에 걸리기도 쉽다. 각막 혼탁이나 구조적 변화 등으로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염증, 감염, 외상으로 각막에 천공 등이 생겨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각막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아 각막 부종이 지속 되면 각막이식을 받아야 한다.

각막이식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건강한 각막을 제공받아야 한다. 다른 장기이식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간편하다. 혈액형이 달라도 거부반응 없이 이식을 할 수 있고, 일부 암이나 다른 질병 있어도 이식이 가능하다. 이식 수술은 각막의 전 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공여각막을 이식하는 전 층 각막이식과 질병이 있는 부분만 층으로 제거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이식하는 부분 층 각막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각막이식 수술 병원 드물어…순천향대 서울병원, 2011년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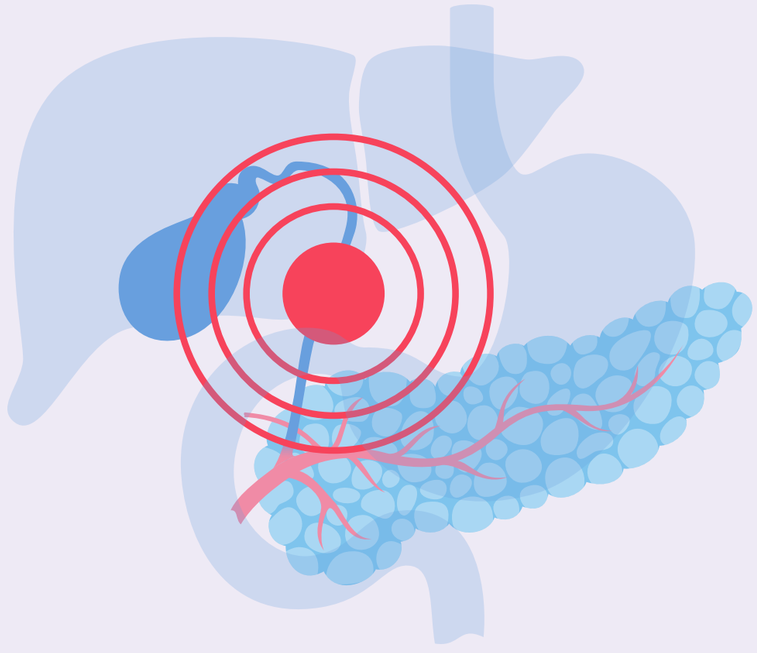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연간 1~2만 건의 각막이식이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뇌사자와 사후 각막기증을 합해 345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각막이식이 필요한 대기자는 2020년 기준 2,286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외국에서 각막을 수입해 이식하기도 한다.

각막이식 건수가 적은 만큼 각막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등록한 곳도 20여 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중 활발하게 이식을 시행하는 곳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011년부터 전 층, 부분 층 각막이식, 각막 윤부이식, 동시망막수술 등 시행 가능한 모든 각막이식수술을 하고 있다. 각막이식클리닉을 책임지고 있는 정진권 안과 교수는 각막을 전공하고 10년 이상 각막이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부립의대, 싱가포르 국립안센터, UCSD샤일리 안과 연구소 연수를 마친 권위자다.

정진권 교수는 “우리 병원도 각막이식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가 많다”며 “장기기증은 물론, 안구기증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서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종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팀(이윤나·신일상 교수)이 진단이 어려운 담도암 조기 발견에 '협대역 내시경 기술을 적용한 담도내시경 검사'의 유용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담도는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관으로, 소화를 돕는 담즙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 생긴 암을 '담도암'이라 하는데, 담도가 매우 가늘고 우리 몸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 초기 증상이 없다 보니 많은 환자가 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5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매우 나쁜 암이다.



진단 어려웠던 담도암 조기 감별 세계 최초 입증

'협대역 내시경 기술 적용한 담도내시경 검사의 유용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팀
(왼쪽부터 조선화 간호사, 이윤나 문종호 신일상 교수, 송아리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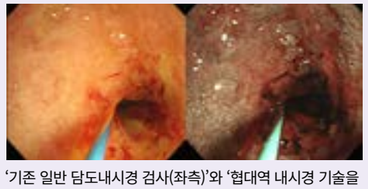
소화기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 9월호에 게재

담도암을 조기 진단·치료하려면 담관 안쪽을 직접 관찰하는 담도내시경 검사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 기존 담도내시경 검사만으로는 담도암 진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팀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단이 불명확한 담도 협착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 담도내시경 검사'와 '협대역 내시경 기술을 적용한 담도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진단 유용성을 비교했다. '협대역 내시경 기술(Narrow-Band Imaging, NBI)'은 기존 백색광 중 침투 길이가 짧은 청색광 영역을 상대적으로 강화해 내시경 영상을 재구성함으로써, 점막 표면과 미세혈관 구조의 관찰 능력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그동안 위암과 대장암의 조기 진단에 이용해왔다.

두 검사의 진단 유용성을 비교한 결과, '협대역 내시경 기술을 적용한 담도내시경 검사'가 기존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담도암을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담도암의 표면 및 미세혈관 구조, 담도암과 정상 담도의 경계 등 조기 진단에 중요한 소견들을 매우 정확하게 감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화기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 9월호(Gastrointestinal Endoscopy, IF: 10.396)'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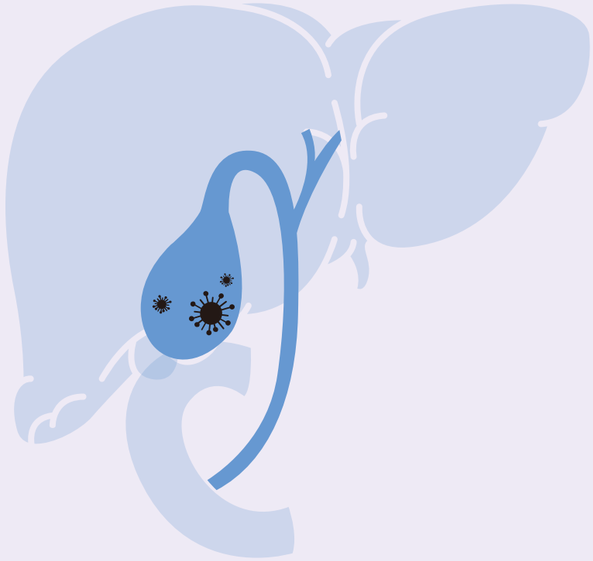
연구책임자인 문종호 교수는 "진단이 어려웠던 담도암의 조기 감별에 '협대역 내시경 기술을 적용한 담도내시경 검사'의 유용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함으로써, 담도암을 더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하여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담도내시경 기술 연구와 발전을 통해 예후가 불량한 담도암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 담도내시경 검사(좌측)'와 '협대역 내시경 기술을 적용한 담도내시경 검사(우측)'로 관찰한 담도 소견

양재국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담낭용종은 담낭 벽에서 담낭 안쪽으로 융기되어 있는 모든 병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성종양이지만 일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 담석과의 차이점은 복부초음파 등의 검사 시 체위변경에 따른 위치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담석의 경우 복부초음파 상 후방 음영이 보이지만 용종은 후방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담낭용종'이 있다는데 수술해야 하나?

1년에 한번 이상 최소 5년 이상 추적검사 필요

증상 없고 검진 중 발견 많아… 대부분 비종양성

담낭용종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드물게 오른쪽 상복부 통증이 오심, 구토,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담낭용종이 담낭관을 막으면 담석으로 인한 통증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건강검진을 받던 중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담낭용종은 크게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다. 종양성 용종은 선종, 선암종 처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이고, 비종양성 용종은 콜레스테롤 용종, 염증성 용종처럼 암과는 관계가 없는 용종이다. 다행히 담낭용종의 대부분은 암과는 관계가 없는 비종양성 용종이다. 하지만 소수의 종양성 용종도 있어 감별이 중요하다.

내시경초음파검사로 정밀 진단

담낭용종을 진단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검사는 복부초음파다. 초음파검사는 매우 정확해서 90% 정도의 담낭용종을 발견할 수 있고, 담석 등 다른 질환과 구별할 수 있다. 담낭용종을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내시경초음파검사는 복부초음파에 비해 진단의 정확도가 높다. 또한 악성 용종을 감별하기 위해 복부CT 또는 MRI가 도움이 될 수 있다.

1cm 이상은 절제술 시행

암이 의심되지 않으면서 크기가 1cm 이하인 담낭용종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크기와 모양, 개수 변화를 관찰한다. 추적관찰 중 크기가 1cm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예방적으로 담낭을 떼어내는 담낭절제술을 고려하게 된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동반되었을 때, 용종의 형태나 모양을 고려할 때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크기가 1cm 이하라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절제술 후 기름진 음식 피해야

담낭의 담즙은 기름진 음식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낭절제술 후 약 2~3개월 동안은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식사 후 더부룩할 수 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낄 때에는 소화제를 복용하고, 평상시의 반 정도로 식사 양을 줄이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

최소 5년 이상 추적검사 필요

수술이 필요 없는 용종이라도 연령, 동반질환, 모양 등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 간격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추적검사 중 크기가 2mm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1cm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수술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추적검사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담낭용종을 5년 이상 추적관찰 해보면 1cm 이하의 용종은 대체로 변화가 없고,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처음 발견 후 8년 뒤에 악성 용종으로 진행한 예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담낭용종이 발견되면 첫 일 년 동안은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번 이상 최소 5년 이상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식단관리+운동으로 예방

아직까지 정해진 예방 가이드라인은 없다. 하지만 비만이나 고지방 식이가 콜레스테롤 용종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간 또한 담낭용종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나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을 피하고 운동을 적절히 병행해 체중 조절 및 지방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정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여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작다면 어떤 경우에 검사를 해야 하는지, 흔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아이, 성장 검사 필요한가요?

또래에 비해 3백분위수 이내거나 1년에 4cm 이하 성장

정상 성장이란?

출생 후 어린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한다. 출생 후 약 2세까지 제1의 급성장기를 거치며 사춘기 이전까지 연간 4~7cm 정도로 비교적 천천히 자란다. 사춘기에 성장 속도가 증가하며 제2의 급성장기를 맞는다. 사춘기 후반부터는 성장 속도가 감소하여 성장이 멈추게 된다. 제2의 급성장기가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빨리 나타난다. 여아는 보통 만 10~11세경 유방의 발달과 함께 사춘기의 급성장기가 시작된다. 성장 속도는 연간 8cm 전후이며, 초경 후 약 2년간 평균 5~8cm가 자란 후 성장이 종료된다. 남아는 보통 만 12~14세경 음모가 진행하면서 급성장이 시작되고, 평균 연간 10cm 정도 자라며, 약 2년간의 급성장 이후 성장 속도가 점차 감소하여 성인키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아이, 언제 성장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같은 성별, 같은 나이의 표준 키와 비교해서 키가 3백분위수(100명 중 작은 순서로 3번째) 미만인 경우, 현재의 키가 저 신장증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어린이가 연간 4cm 미만의 키성장을 보이는 경우 성장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춘기가 여아 8세 이전 또는 남아 9세 이전에 시작된 경우, 사춘기는 시작되었으나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경우, 출생 시 키 또는 체중이 3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만성 신질환/심장질환/장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성장검사가 필요하다.

성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키와 체중을 측정하고 필요시 머리둘레를 측정한다. 부모의 키 및 성장 패턴, 다른 가족의 성장 패턴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출생 시 체중 또는 키는 중요한 정보이며 영유아 검진 또는 학교 신체검사 자료 등을 통해 대략적인 성장 속도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체검진을 통해 사춘기 발현 정도 및 성장장애와 관련된 전신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며, 골연령 측정, 혈액 및 소변 검사로 성장장애와 관련된 질환의 유무와 갑상선 호르몬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염색체 검사나 특정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자극 검사에서 모두 성장호르몬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고 진단되며, 뇌하수체 MRI를 촬영하여 뇌 병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키 작은 우리 아이, 왜 작을까요?

▲가족성 저신장(유전적 저신장증)은 부모의 작은 키가 유전된 것입니다. 성장 속도는 연간 4cm이상으로 정상이며, 골연령도 정상이다. 사춘기도 다른 어린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며, 최종 성인키는 작은 경향이 있다.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 ▲체질성 성장지연은 또래보다 어리게 보이며 늦게 자라는 경향이 뚜렷한 경우로, 골연령이 어리며, 사춘기 발현도 또래보다 늦다. 하지만 골연령에 해당하는 성장 속도는 정상이며, 부모님이 사춘기가 늦었거나 늦게까지 자란 경우가 많다. 사춘기에는 또래보다 키가 작지만, 성장이 늦게까지 지속되어 성인이 되면 정상키 범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병적인 저신장증이란 성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로서 성장검사를 통하여 원인 감별 및 치료가 필요하다. 호르몬의 이상(성장호르몬 결핍증, 갑상선 저하증 등), 염색체 또는 유전자의 이상(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 프라더 윌리 증후군, 누난 증후군 등), 골격계 이상(연골 무형성증, 골이형성증) 또는 만성 질환(만성 신부전, 심장 질환, 소화기 질환, 종양성 질환) 등으로 인해 저신장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특발성 저신장은 진단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로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키만 작은 경우를 말한다.

출생 시 키와 체중도 정상이었던 경우로, 성장호르몬 신경분비장애, 성장호르몬 수용체 이상 및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경우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성장호르몬 사용에 따른 결과는 다양하지만 최종 성인키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우세하다.

가족성 저신장, 체질성 성장지연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 저신장이 비교적 흔하지만, 병적인 저신장증의 경우 정확한 원인 감별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저신장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녀의 키가 작다고 의심되면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또래와 비교하여 키가 3백분위수 미만으로 작거나 1년에 키가 4cm 이내로 자라는 경우 소아내분비과 진료를 권한다.

Sonata 65 channel PSG

SONATA 수면검사장비는 Wi-fi 시스템으로 검사 시 환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한 최신 수면다원검사장비입니다. 수면에 관련된 모든 질환,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기면증, 렘수면 행동장애, 주간 졸리움 등 진단합니다. 뇌기능 상태를 알기 위한 뇌파 검사(EEG), 눈 움직임을 보기 위한 안전도 검사(EOG), 근육 상태를 알기 위한 근전도 검사(EMG), 심장 리듬을 보기 위한 심정도(EKG), 전체적인 상태를 보기 위한 비디오 촬영 등을 같이 시행하면서 수면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수면다원검사” 3개 이상 해당시 검사를 권장합니다

- 코골이가 심해 주변 사람이 힘들어 하는 경우
- 코고는 소리, 혹은 숨 막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난적이 있는 경우
- 자다가 숨을 안쉬는 것을 가족 또는 누군가가 본 적있는 경우
-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고 너무나 피곤한 경우
- 잠을 충분히 자도 졸음 때문에 낮에 생활이 힘든 경우

철을 가려 마시는 제철커피의 가치

수확 후 1년 이내 커피가 가장 신선

글_ 박영순 커피인문학 칼럼니스트

커피를 마실 때에는 계절을 따져 '제철 커피'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과일은 철을 따져 신선한 것을 고르려 애쓰면서도 커피는 대체로 주는 대로 마신다. 커피 역시 농산물로서, 체리 또는 베리(딸기)라고 불리는 열매에 들어 있는 씨앗을 가려낸 뒤 볶고 갈아서 그 속에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커피 음용자는 잔에 담긴 커피가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해 만든 것인지, 썩거나 곰팡이가 난 것은 아닌지를 알 도리가 없다. 맛으로 가늠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질을 갖추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커피는 신뢰 속에 구축해 가야만 하는 고단한 문화"라고 풍자하는데, 상인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제철 커피를 팔아줄 것이라고 믿고만 있기에는 사실 불안하다.

적도 중심의 열대-아열대성 관목식물

제철 커피를 즐기는 능력은 우리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 커피가 볶아 먹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맛을 통해 원재료의 깨끗함과 우수함을 가려낼 수 있다. 굳이 맛보지 않아도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제철 커피를 알아차릴 수 있다.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 24도 범위 안에서만 자라는 열대-아열대성 관목식물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 겨울을 겪는 한반도는 커피나무를 오직 비닐하우스에서만 기를 수 있다. 에티오피아, 예멘, 인도, 베트남,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등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는 대체로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커피를 수확한다. 남반구에 있는 르완다, 부룬디, 파푸아뉴기니, 페루, 볼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등은 주 수확 철이 5~10월이다. 적도가 지나는 케냐,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는 1년에 두 번 커피를 수확한다. 케냐는 12월과 1월에 주로 수확하지만 5~7월에도 수확할 수 있다. 커피 산지는 10월을 해가 바뀌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5~7월 수확물을 빨리 거둔다는 의미에서 플라이 크롭(fly crop)이라 부른다. 콜롬비아와 페루에서는 주 수확철 사이에 거둔다고 해서 미타카(mitaca)라고 표기하는 커피가 있다. 주 수확철 커피보다는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

갓 수확한 커피 국내서 맛보려면 5개월 걸려

수확한 커피 열매가 가공과 건조 과정을 거쳐 포대에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2개월가량 걸린다. 여기에 농장에서 항구까지 나가 배에 실린 뒤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도착하기까지 2~3개월이 더 소요된다. 갓 수확한 커피를 국내에서 맛보려면 수확일로부터 4~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수확한 지 1년 이내인 커피를 뉴 크롭(New crop)이라 부르며 신선한 것으로 대접한다. 1년을 넘기면 패스트 크롭(Past crop)으로 분류해 품질이 떨어진 만큼 가격을 낮춘다. 2년을 넘기면 올드 크롭(Old crop)이라고 칭하며 음료로 만들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묵을수록 질에 떨어짐에도 커피 수확일 을 표기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다. 소비자가 까다롭게 제철 커피를 요구해야 한다. 제철 커피는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 좋다. 묵은 것은 되레 건강을 해치기 쉽다. SCH

순천향대학교 • 의대동창회

‘5G 통신시스템 개발 보안 지침’ ITU-T 국제 표준 최종 채택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보안 표준연구실이 주도하는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화 연구가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9월 7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차세대 보안 표준연구실이 제안한 ‘5G 통신시스템 개발을 위한 보안 지침’이 ITU-T 국제 표준으로 최종 채택되고, 현대오토에버와 공동 제안한 ‘차량 ID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이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됐다. ITU-T는 정보 통신 분야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통신 장비와 시스템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를 개최해 정보보호 분야 국제 표준안을 최종 채택했다.

SW 동아리, 지역 청소년 SW 인재 양성 마중물 역할

순천향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AI·SW에 관한 흥미 유발과 SW 가치 확산을 위해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사물인터넷학과 등 5개 학과 4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SW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역에 있는 ‘아산중학교’를 선정해 SW 역량 강화를 위한 ‘SW 명문 중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SW 활동 지원 △SW 기초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 스크래치 교육 △C언어 프로그래밍 및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제20회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 성료

순천향대학교가 9월 15일 국내 최고 화이트해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제20회 순천향대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 해킹 방어 경연대회는 전국의 중·고교생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 오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6시간 동안 온라인 예선을 실시, 총 16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순천향대 향운 이현옥 세미나실에서 8시간 동안의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최우수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우수상은 순천향대 총장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상이, 장려상은 협력기관장의 상이 각각 수여됐다.

‘제76회 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남자 단체전 우승, 개인전 단식 준우승

순천향대학교는 ‘제76회 전국 추계 대학 테니스 연맹전 겸 제34회 회장 배 테니스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우승, 개인전 단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 양구군 테니스 파크에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명의 선수가 참가한 순천향대는 단체전에서 1위를, 개인전 단식에서 추석현(사회체육학과, 3) 학생이 2위에 오르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순천향대 테니스부는 1984년 창설 이후 매년 전국체전 및 국내 주요 경기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며 테니스 명문대학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제9회 대한민국 SW 융합 해커톤 대회 ‘우수상‘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컴퓨터공학과 학부생과 ICT융합학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UC연구실’이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SW 융합 해커톤 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충청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미래를 향한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및 서비스’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전국 11개 소프트웨어 융합 산학협력단지(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가 주관했으며, 충청북도를 포함해 총 13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후원했다.

동창회·의과대학·병원 발전을 주제로 간담회

지난 10월 백승호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진과 함께 이사장, 의료원장, 학장, 4개 병원장 및 장학회장 등 함께하여 동창회와 의과대학 및 병원 발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서유성 교수 정년퇴임식 감사패 전달

지난 8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서유성교수의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백승호 동창회장 참석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서울병원

파미셀과 재생의학 연구·의료관광 협약

서울병원(이정재 병원장)은 9월 21일, 파미셀(김현수 대표)과 재생의학 연구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관광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줄기세포 빅데이터 및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기술을 연구한다. 이 외에도 ▲유전자 분석에 필요한 원료물질 개발 ▲전임상 및 임상연구 ▲신약개발 연구 등을 진행한다. 한편, 파미셀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외 10개 기관에서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엘씨(Cellgram-LC)의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적십자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서울병원(이정재 병원장)은 9월 21일 서울적십자병원(문영수 병원장)과 국민 건강 증진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활한 환자 진료의뢰·회송을 위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 환자의뢰 ▲의학정보 교류 ▲기술 및 정보교류 등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적십자병원과 협력 협약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48회 복부초음파 및 내시경초음파진단 워크숍

소화기병센터는 9월 25일 이현옥홀에서 제48회 복부초음파 및 내시경초음파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부위별 정상 초음파, 질환별 초음파소견, 비디오 데몬스트레이션 등의 내용을 조명했다. 특히 사전 신청한 현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핸즈 온 코스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최근(10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에 지정되었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첨단바이오 융복합치료 등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을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을 통해 대체·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희귀·난치질환자 등 현재의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로,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함께 미래의료 핵심 분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며,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에 부합하는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임상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은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발판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및 환자의 질병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

부천병원

‘진료정보 교류사업을 통한 의뢰-회송 활성화 심포지엄’ 성료

부천병원이 주최한 ‘진료정보 교류사업을 통한 의뢰-회송 활성화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진료정보 교류사업’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류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급성기·중증 치료 완료 후 지역 병·의원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의뢰-회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요양병원·의원 등 총 78개 의료기관 협력병원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천병원, ‘하반기 정부 지원 생애 첫 연구 과제 3건’ 선정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2022년도 하반기 정부 지원 기초연구사업 - 생애 첫 연구’에 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박신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폐기종 중증도 및 악화와 연관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기전 규명’, ▲이지은 영상의학과 교수의 ‘팽대부 협착 환자의 악성도 예측: CT와 약식 MRI를 사용한 표준화된 예측 모델 개발’, ▲조윤영 내분비내과 교수의 ‘갑상선암 수술 후 적절한 추적 간격 및 기간에 대한 연구’ 등 3건이 ‘생애 첫 연구’ 과제에 선정됐다.

부천병원, ‘디지털 기반 간이혈당검사 시스템’ 구축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최근 ‘디지털 기반 간이혈당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도입한 ‘디지털 기반 간이혈당검사 시스템’은 검사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검사 결과가 측정과 동시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전송된다. 치명적인 검사 결과는 담당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해 응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혈당 측정 전 반드시 검사자·환자 확인 바코드를 스캔해야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자·환자 식별 바코드’를 도입해 검사 정확도를 높였다. 부천병원은 높은 검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간이혈당검사 검사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검사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가가 매월 내부 정도관리 및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유관부서와 공유한다.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 ‘제62대 대한신경외과학회장 취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가 10월 6일 제62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62대 대한신경외과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1년이다. 김범태 신임 회장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수련부장과 진로부장, 순천향의대 동창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뇌신경센터장으로서 의료계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 다양한 학술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뇌혈관 전문가로서 환자와의 소통 및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제15회 뇌혈관 환우회·제27차 이해하기 쉬운 신경해부학 강좌’ 성료

‘제15회 뇌혈관 환우회’가 10월 20일 순의홀에서, ‘제27차 이해하기 쉬운 신경해부학 강좌’는 10월 22일 순의홀에서 하이브리드 강좌로 진행됐다. 부천병원은 매년 뇌혈관치료를 경험한 환자와 가족을 초청해 환자와 의료진이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이해하기 쉬운 신경해부학 강좌’는 1993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돼왔으며, 올해는 신경계 외에도 내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중환자실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진 약 23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 접속을 통해 참석했다.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 대한정신약물학회 오츠카 학술상 수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가 2022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츠카 학술상을 수상했다. 오츠카 학술상은 정신약물학 분야의 연구 진흥을 위해 2002년 제정된 상으로 학회는 매년 학술 및 연구 업적이 뛰어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심 교수는 최근 3년간 ▲우울증을 동반한 ADHD 성인의 약물치료 ▲자살의 신경생리학 연구 등을 비롯한 12편의 국제 논문을 발표하고, 대한정신약물학회 교육이사를 역임하는 등 왕성한 학술 활동과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셀젠텍과 ‘CAR-NK 세포치료제’ 공동개발 착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셀젠텍과 함께 CAR-NK 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천안병원은 CAR-NK 세포치료제를 ㈜셀젠텍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병원 혁신형의사과학자융합연구센터 회의실에서 관련 협약식을 개최했다. CAR-NK 세포치료제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한 NK세포(자연살해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 암세포에 작용하도록 만든 면역항암제다. 기존 항암제들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다. 백무준 연구부원장(외과)은 “현재 혈액암 치료제로 한정 사용되고 있는 CAR-NK 세포치료제의 치료범위를 다양한 고형암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력의 ㈜셀젠텍과 함께 더 안정적이고 유효한 새 항암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최성준 교수,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비인후과 최성준 교수가 ‘2022년 범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가 주관한 ‘제1차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연구책임자에게 주는 상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폐렴 환자를 선별해내는 ‘포터블 호흡기 진단통합 시스템 방역기기’를 개발했다. 이 기기는 AI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체온측정, 흉부 엑스레이 촬영 및 판독, 산소포화도 측정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포터블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다. 최 교수는 “의료진 접촉 없이도 검사와 결과판독을 원스톱으로 시행하는 기기”면서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 공항, 항만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주기 1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전국 9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권고되는 18개 수술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항생제 투여율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의무기록 일치율 등 4가지 평가영역에서 모두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힐링캠프 개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충남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이용진)가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는 1989년 폐쇄 전까지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상 피해를 끼쳤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자로 인정받아 현재 정부로부터 구제 및 관리를 받고 있다.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70여 명이 초청된 힐링캠프에서는 피해자들의 심신 안정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힐링캠프는 ▲환경성 중금속 오염과 건강관리 강연(직업환경의학과 이용진 교수) ▲주민과의 위해도 소통 ▲진단폐활량계 폐기능검사 ▲심신건강 상담 및 체험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용진 센터장은 “피해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작아졌길 바란다”면서, “충남지역의 각종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힐링캠프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1등급 획득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주기 1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최우수 1등급을 획득 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수술 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술 부위 감염 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평가 대상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담낭수술 ▲척추수술 ▲대장수술 ▲충수염수술 ▲골절수술 등 18개 수술을 시행한 9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환자관리 등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담낭수술, 골절수술 등에서 100점 만점으로 기록하며 전체평균 95점을 획득해 참여한 의료기관 전체 평균(54.3점)과 동일종별 평균(63.6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정일권 병원장은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고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 의료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북 중서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서 환자 안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주기 의료기관인증 2년차 중간현장조사 실시

구미병원은 9월 29일, 보건복지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3주기 의료기관 인증2년차 중간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월 구미병원이 3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이후 2년차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중간평가로 환자안전과 의료질향상 및 환자안전기준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인증원에 소속된 3명의 조사위원이 ▲환자안전 보장활동 ▲진료전달체계 ▲환자진료 ▲시설 및 환경관리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정확한 환자 확인, 손위생, 지표관리 등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일권 병원장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중간현장조사를 철저하고 성실히 준비한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환자안전과 의료질향상,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희망디딤돌 경북센터와 MOU체결

- 자립준비청년의 진료지원 및 의료비지원 등 건강관리체계 구축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10월 6일, 희망디딤돌 경북센터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양승부 부원장(순천향대 구미병원)을 비롯하여 김홍기 센터장(희망디딤돌 경북센터), 김진현 사무처장(순천향대 구미병원), 변정숙 의료사회복지사(순천향대 구미병원), 최낭영 사무국장(희망디딤돌 경북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비지원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승부 부원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지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 건강나누리 캠프 진행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윤성용)는 10월 1일 국립공원 한려해상 생태탐방원에서 '2022년 건강나누리 캠프'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실을 개최했다. 한려해상 생태탐방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강연자 및 참가자에 대한 개인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는 최근 손소독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부 발진과 염증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쉽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손소독제를 소개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안전한 손소독제'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만들면서 배우는 안전한 우리집 팝업북 만들기 체험학습을 통해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각 유해물질 성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

www.schmc.ac.kr/

세계를 향해 위대한 병원으로 도약하는 '순천향'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합니다!"

순천향의 가치는 생명 존중과 환자의 행복입니다.
환자와 가슴으로 소통하며 세상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전국 4개(서울·부천·천안·구미) 권역에서 대한민국을 진료합니다.
천안에 최첨단 의료시스템 갖춘 1천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건립합니다!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순천향대병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 어록 中에서

SCH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서울병원 www.schmc.ac.kr/seoul 02-709-9114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SCH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